

## 민화속의 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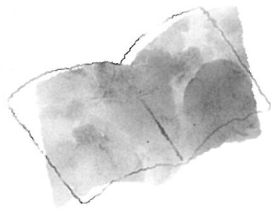


나 재 천 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아내가 닭을 그리겠다고 본을 뜨기 위해 가져온 그림에는 모란과 함께 닭이 그려져 있다. 윤열수의 '민화' 라는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수탉이 하늘을 보고 크게 우는 모습과 모란을 함께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는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뜻하는 그림이다. 공계(公鷄-수탉)의 공(公)과 운다는 뜻의 명(鳴)은 공명(功名)과 독음(讀音)이 같아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쓰이며 여기서 모란의 부귀를 더 합치면 부귀공명이 되는 것이다.」

부유하고 명예로운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닭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까닭은 따로 있다. 집에서 기르는 닭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보려는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내는 텃밭과 정원의 식물들과 새들, 그리고 키우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만들고는 내게 들려주곤 한다. 뭔가를 탐색하고 나름대로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이다. 어디서든 심심해하지 않고 저녁에 정원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면 재미있다. 테이블 밑에 강아



지 두 마리를 매어놓고 도란도란 거리고 있으면 강아지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자기도 한다. 나는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

나는 닭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정작 닭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 아내의 민화 책을 뒤적이다가 닭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몇 자 적어본다.

닭 그림은 호랑이 그림과 함께 정초에 벽사초복(辟邪弭福)의 뜻을 담아 대문이나 집안에 붙였다. 또 닭이 12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날개를 달고 있는 짐승으로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기도 했다.

〈회남자淮南子〉에는 ‘천계(天鷄)가 있어 해가 뜰 때 소리 내어 울면 천하의 모든 닭들이 따라 온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지어 본다면 벽사용 그림의 닭은 천계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닭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민화에 나타난 닭의 모습에도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역시 천계의 전설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수탉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광명을 두려워하는 잡귀가 모두 도망치는 것은 가끔 전설의 고향에서도 보았던 내용이다.



수탉의 붉은 벼는 벼슬과도 이름이 같아 입신출세(立身出世)를 기원하는 그림에 등장한다. 만드라미와 닭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경우는

닭과 만드라미가 서로 어울려 관상가관(冠上加冠)이라는 길상적(吉祥的) 문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관상가관이란 관위에 또 관을 더한다는 뜻으로 입신출세의 최고경지에 이름을 말한다.

닭 머리 위의 벼(벼슬)는 계관(鷄冠)이라 하고 만드라미 역시 닭의 벼와 모양이 닮아 계관화(鷄冠花)라고 부르고 있다. 이 두 소재를 화면의 위아래 배치하여 관위의 관, 즉 관상가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암탉은 매일 알을 낳으므로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호랑이를 벽사초복의 뜻으로 걸어놓은 집들은 심심치 않게 본다. 처가에도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닭 그림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전설의 고향 같은 옛이야기를 즐겨보았는데도 귀신이 닭울음소리를 듣고 화급히 물러

가는 장면 같은데 별 의미를 두었던 적은 없었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아니 닭울음소리만이 아니라 개 짖는 소리도 예전처럼 많이 들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점점 귀찮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소리를 싫어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동물들의 소리가 도시에서 내뿜는 기계들의 굉음보다 못한데도 이웃의 개짖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 마찰을 빚어 참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귀신과 재앙을 쫓아주는 닭울음소리를 싫어하고 도둑을 막아주는 개 짖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벽사라는 것이 어디 귀신만 물리치는 것을 뜻하겠는가. 옛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액이라 하여 이를 막고자 해서 벽사의 의미를 지닌 그림이나 사물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민화는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의미를 찾고 몸과 마음을 닦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지난 겨울에 벼를 벤 논과 마당에 닭들을 풀어놓았다. 닭들은 자기들 습성대로 여기저기 파헤치고 쪼아 먹곤 했다. 나와 아내가 심은 양파와 쪽파까지 뿌리가 드러났다. 아내는 걱정과 탄식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마당에서 노니는 그 녀석들이 귀엽기만 했다.

그리고 아는가? 그 녀석들이 지나간 뒤에 다시 심은 양파가 그 녀석들의 입질을 피한

양파보다 더 크게 결실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보면 옛날에 모택동이 식량을 축낸다고 참새들을 없애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참새들이 해충을 없애주는 역할을 간과한 때 문이란다. 한동안 청원부근의 과수원을 휩쓸었던 여치 떼가 닭을 풀어놓은 농장에는 별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것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생명들에 대한 작은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 틈보다 더 큰 공간이 마음의 여유로 되돌아오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닭들이 땅을 파헤치면서 그 속에 있는 해충을 잡아먹은 덕에 양파뿌리가 싹했나보다고 아내는 뒤늦게 싱글거린다. 수확할 때 보니 뿌리가 다르더라고. 이만하면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벌레를 없애주고 실한 양파도 먹게 해주니 닭은 벽사초복의 존재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